

하나님 나라와 경제민주화

정운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들어가기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많은 선진국가가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조금씩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소득과 기회(특히 고용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경제권력의 평등화를 의미하며 경제정의와도 일맥상통한다. 경제민주화를 꼭 풀어야 할 과제로 보는 이유는 경제권력의 과점현상이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의 근로자가 전체 소득세의 68%를 납부하고 있으며, 하위 39%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상위 20%의 소득은 41%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24%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은 상위 1%의 부(富)가 하위 90%의 부를 합친 것보다 크며, 펀드매니저 25명의 연소득이 뉴욕시 교사 80,000명의 연소득의 8배에 달한다. 후자의 통계에서 두 집단의 교육수준이 비슷하다는 사실은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수준과 소득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전통적 현상이었지만, 이제는 교육수준으로 소득격차를 설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폴 크루그만은 이러한 현상을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으로 설명한다.

얼마 전 발생했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구호의 대규모 시위는 바로 승자독식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월가는 미국 금융의 중심지로서 승자독식의 탐욕이 만연하고 또 당연시 되는 곳이다. 시위대의 피켓 중 하나인 “1% 대 99%”는, 월가의 승자들이 1%의 부자라면 시위대는 빈곤한 99%라는 의미로, 경제양극화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잘 대변한다. 이러한 시각과 대중의 분노에 대해 마이클 포터는 “자본주의 체제가 포위공격 받고 있다(The capitalist system is under siege)”고 우려한다. 본고의 목적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세속적 시각과 대비하여 살펴봄으로써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와 행동을 모색하는 데 있다.

왜 경제민주화인가?: 세속적 시각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justice)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행복(happiness), 자유(freedom), 미덕(virtue)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방식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 사고를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진희 회장의 재산 중 100만 원을 노숙자에게 주면 이회장의 행복 감소분보다 노숙자의 행복 증가분이 훨씬 더 크므로 사회적으로 행복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에 따르면 부자 증세와 복지정책은 정의로운 경제민주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자유를 인간의 절대기본권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자율적 권리, 특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자유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는 두 가지 사상이 파생된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극대화 되는 장소가 시장(marketplace)이므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도덕적/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덕을 입법화(예: 낙태금지, 동성혼인금지 등)하지 않으므로써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의 삶인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철학은 도덕과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켜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존 롤스가 주장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자유롭

게 합의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원칙적 평등상태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 지위, 소유, 교육수준 등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가상적 상태로, '무지(無知)의 장막 뒤'라고 표현한다. 존 롤스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합의할 원칙은 결국 평등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유 시장주의에 의하면, 부자 증세 등의 정책을 통한 경제민주화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강요나 속임수가 없는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부를 획득했다면, 부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빈자를 돕는 복지정책은 개인의 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존 롤스의 관점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정당화 될 소지가 높다. 모든 사람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합의할 원칙은 '부의 평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무지의 장막이 걷히면 나의 정체성이 이견적 회장이 될 수도 있지만, 노숙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방식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포상, 영광을 안겨주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정의이다. 이 정의의 핵심은 권리나 포상을 받을 자격의 근거, 즉 '미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권리나 영광을 안겨주는 목적 또는 본질(텔로스)이 무엇인지 따져야 하는 '목적론적 추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하철요금 경로우대 제도를 예로 든다면, 어떤 이들은 부유한 노인들에게까지 무료지하철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만일 무료지하철 이용권리 또는 영광을 주는 목적이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이처럼 권리나 포상, 영광을 받을 자격에 관해 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서 '미덕'이 무엇인지 정해야 하는 '도덕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즉, 미덕으로 이해되는 정의는 도덕(또는 좋은/선한 삶)과 중립적일 수 없는데, 이는 '공리주의' 또는 '자유주의'로 이해되는 정의가 도덕과는 중립적(neutral)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면 경제민주화는 미덕의 관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있을까? 마이클 샌델은 이 질문에 매우 설득력 있게 답변한다. 경제양극화는 부자와 빈자의 삶의 현장을 분리시키고 공동체 연대의식을 파괴함으로써 시민의식, 애국심,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해체시킨다. 물론 빈자들이 부자들의 소유를 나눠가질 자격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공동체의 해체를 막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는 한, 미덕이라는 정의의 관점에서는 정당화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와 경제민주화

지금까지 세속적 정의의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평강(shalom)'이라는 코드로만 이해될 수 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영광, 권리, 포상을 주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세속적 정의와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필립 안시는 '은혜는 불공평하다(unfair)'고 하였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는 코드로서의 샬롬은 개인적 내면의 평강이 아닌 공동체의 평강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의 샬롬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샬롬을 얻으려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특히 상실된 공동체의 샬롬을 회복하려면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한다.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가 경제문제와 연관되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신 10:17-19; 시 146:7-9; 사 58:6-7; 렘 22:3; 겔 18:5-8; 암 8:5-6; 숙 7:9-10). 특히,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이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사실은 더욱 그렇다. 이러한 규례 중 부채탕감에 관한 것이 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빛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와 때가 섰도왔기 때문이다."(신 15:1-2) 팀 켈러는 이 규례를 가난을 초래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인 부담스러운 장기부채를 무조건적으로 제거하는 일종의 공공정책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는 이삭줍기에 관한 것이다. "추수할 때... 네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네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레 19:9-10) 이것은 경제적 약자가 스스로 생계를 마련하도록 만든 공공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기업과 연관시켜 해석한다면 이윤극대화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규례로 십일조 규정이 있는데, 십일조는 일차적으로 제사장 직분 수행을 위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한 규정이지만, 매 3년마다 고아와 과부, 나그

네 같은 빈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규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신 14:28-29). 이에 더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결정적인 규례는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희년 제도이다(레 25:8-55; 신 15:1-18). 당시 토지는 가장 중요한 경제수단으로, 희년 제도는 경제양극화를 단번에 해소하는 부의 재분배 수단이었다. 50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어 토지를 다 팔고 남의 종으로 전락한 집안이 있다면, 희년 제도는 절망적인 가난과 빛의 구렁이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경제력의 집중과 심각한 빈부격차는 공동체의 샬롬을 파괴하는 큰 요인이다. 하나님께서 상실된 경제적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부채탕감, 이삭줍기, 희년 제도와 같은 규례를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무조건적인 것'이므로 은혜가 없이는 결코 시행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경제민주화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기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자(미 6:8),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5)는 말씀을 성취하고 공동체의 경제적 샬롬을 이루하는 것이다.

마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제적 문제, 즉 물질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제적 약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팀 켈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삶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한다. 마지막 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근거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마 25:31-46)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채탕감, 이삭줍기, 희년 제도들을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도 절실하다.



정문오 서울대학교, Cornell University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UCLA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를 회계학으로 전공하였다.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회계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며, 한국회계학회 연구 분야 실용저널 교수이다. 은누리 교회에서 세계관학교 사역장으로 섬기고 있다.